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은주*, 홍수진, 김세현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Childbirth Will of University Students

Eun-Joo Lee*, Su-Jin Hong, Se-Hyun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출산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대상은 K 대학교 남녀 재학생 150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네이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2021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의향이 있는 대학생은 67.5%이었으며, 출산의지는 5점 만점에 평균 2.98점이었다. 출산의지는 결혼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50, p<.001$), 양성평등의식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6, p<.001$). 결혼관은 양성평등의식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16, p=.048$), 양성평등의식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 p<.001$).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의향($\beta=.44, p<.001$),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beta=.15, p=.031$), 결혼관($\beta=.23, p=.001$)이었으며($F=18.58, p<.001$), 설명력은 48.0%이었다. 대학생의 출산의지는 결혼에 대한 개인 의지와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의 저출산 대책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to children among university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150 subjects was recruited from K university in Changwon,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cheffe's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67.5% of the subjects had the intention to marry, and the mean score for their willingness to bear children was 2.98 out of 5 points. The willingness to bear children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view on marriage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views on marriag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In the regression analysis, marriage intention ($\beta=.44, p<.001$), parents' marital happiness ($\beta=.15, p=.031$), and the view on marriage ($\beta=.23, p=.001$)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willingness to bear childre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se variables explained 48.0% of the variance in the willingness to bear childre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since the university students' willingness to bear children is greatly affected by their personal will and value perception about marriage, a strategy different from the national policy to counter low fertility will be needed.

Keywords : Childbirth Will, University, Student, View on Marriage, Marriage Intention

*Corresponding Author : Eun-Joo Lee(Kyungnam Univ.)

email: abigail@kyungnam.ac.kr

Received September 27,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Revised October 20,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Infectious Disease-19, COVID-19) 유행 이후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최저치로 집계되고 있다[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기준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으로(2020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2].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낮은 초혼 연령에 따른 출산 연령의 증가[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4]인 것으로 보고된다. 과거와 달리 외벌이로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다[5]. 또한 미혼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낮아진 출산의향이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6]. 미혼 여성은 가족보다 친구와 애인을 중요한 지지망이라 인식하고, 결혼에 대한 연령 규범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에서 결혼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8] 향후에도 출산을 감소는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6].

저출산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국가 성장의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이에 국가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한 '저출산 정책 로드맵'에서 2040세대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삶을 조성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10]. 구체적으로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 휴가, 돌봄 휴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10]. 이러한 정책은 안전한 돌봄체계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출산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11].

출산의지는 출산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의사이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나 계획이므로[12] 향후 출산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개인의 출산의지와 관련된 요인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며 예비부모가 될 대상이므로 이들의 출산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토대가 되

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출산의지는 개인이 가지는 결혼관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13-15]. 결혼은 출산 이전 필수조건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고 결혼관이 긍정적일 경우 출산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14]. 결혼을 위한 적정 연령이 있으며(보수적 결혼관), 결혼은 필수적이며(적극적 결혼관), 결혼이 출산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구적 결혼관)에도 출산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5]. Lee와 Hong[11]은 대학생의 출산의지는 기혼여성과 달리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요구사항보다 결혼 가치관 및 필요성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질 때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양성평등의식 또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16]. 양성평등의식이란 여성과 남성의 속성, 역할, 능력에 관하여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지 않고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17]. 가족 구성원이 성별 역할에 대한 차별없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출산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18]. 성평등의식이 개선될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출산을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5]. 또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성역할 변화는 우리 사회의 미혼화 경향을 높일 수 있다[8].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육아부담감, 경력단절 등은 출산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19], 가부장적 가족역할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식을 가짐으로써[16] 출산의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Barber[20]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생각, 표현, 감정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게 되는 행위라고 하였다[20]. 이러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21]뿐 아니라 자녀의 주도성과 대인관계 발달[22], 학업[23] 등을 방해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엄격 등에 따라 자녀의 인생과 가치관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대학생의 출산의지 관련 선행연구는 가족건강성, 결혼관[14],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16], 자녀가치, 결혼동기, 부모와의 관계[24] 등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포함하여 출

산의지와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대학생의 출산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통해 인구증가와 사회발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출산의지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출산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대학생 중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5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기 위해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행 연구[22]를 근거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중간 효과크기), 예측변수 10개(일반적 특성 7문항,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산출한 결과 최소 147명이 요구되었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총 165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15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결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7]에서 실시한 미혼여성들의 결

혼 및 가족의식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최소 7점에서 최대 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평소 생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2.3.2 양성평등의식

Kim과 Jung[25]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를 Lee 등[26]이 성차별성·성평등성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최소 28점에서 최대 1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부모의 심리적 통제

Barber[20]가 개발한 도구를 Jeon[27]이 번안한 부모 심리통제 척도(PSC-YSR; Psychologic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감정불안정, 자기표현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불안정한 감정기복, 애정철회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4 출산의지

출산의지는 연구자들이 만든 '귀하께서는 자녀를 출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네이버 설문조사 시스템에 설

문조사 문항을 작성하여 생성된 네이버주소를 학생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WIN을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출산의지는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출산의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자료의 익명성, 비밀보장, 그리고 연구 참여 중 철회 가능함과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출산의지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 129명(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균 22.75±3.86세였고, 중위수인 22세를 기준으로 하여 22세 미만이 69명(45.7%), 22세 이상이 81명(53.6%)이었다. 학년은 2학년 이하가 79명(52.3%)이었고, 3학년 이상이 71명(47.0%)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00명(66.2%)이었고,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가 102명(67.5%)이었다.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가 118명(78.1%)이었고, 부모님의 결혼생활 행복에서 '행복한 편'이 77명(51.0%)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는 성별($t=2.75, p<.007$), 학년($t=-2.31, p<.023$), 결혼의향($t=9.13, p<.001$), 부모의 결혼상태($t=3.10, p<.002$),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F=38.80, p<.001$)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년이 3학년 이상이 2학년에 비해, 결혼의

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가 별거,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 비해, 부모의 결혼 행복정도가 '행복한 편'이 '보통', '행복하지 않은 편'에 비해 출산의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Difference of childbirth wil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Variables	Categories	N(%)	Childbirth will	
			Mean±SD	t/F(p)
Gender	Male	22(14.6)	3.64±1.05	2.75
	Female	129(85.4)	2.86±1.25	(.007)
Age* (yr)	< 22	69(45.7)	2.77±1.19	-1.93
	≥ 22	81(53.6)	3.16±1.28	(.055)
Grade*	≤ 2	79(52.3)	2.75±1.15	-2.31
	≥ 3	71(47.0)	3.21±1.32	(.023)
Religion	Yes	51(33.8)	3.10±1.28	0.87
	No	100(66.2)	2.91±1.23	(.383)
Marriage intention	Yes	102(67.5)	3.49±1.05	9.13
	No	49(32.5)	1.90±0.90	(<.001)
Marital status of parents	Married	118(78.1)	3.14±1.22	3.10
	Others	33(21.9)	2.39±1.20	(.002)
Marital bliss of parents	Unhappy ^a	14(9.3)	1.12±0.35	38.80
	Moderate ^b	59(39.3)	2.70±1.11	(<.001)
	Happy ^c	77(51.4)	4.02±0.82	c>b

*missing value

3.2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출산의지

대상자의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출산의지는 Table 2와 같다. 결혼관은 4점 만점에 평균 3.02±0.43점이었으며, 양성평등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53±0.41점이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4점 만점에 평균 1.84±0.60점이었으며, 출산의지는 5점 만점에 평균 2.98±1.25점이었다.

Table 2. Attitude toward marriag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birth will (N=150)

Variables	Range	M±SD	Item M±SD
Attitude toward marriage	14~28	21.15±2.99	3.02±0.43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68~115	98.98±11.36	3.53±0.41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16~64	29.51±9.53	1.84±0.60
Childbirth will	1~5	2.98±1.25	2.98±1.25

3.3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출산의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출산의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출산의지는 결혼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50, p<.001$), 양성평등의식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6, p<.001$). 결혼관은 양성평등의식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6, p=.048$), 양성평등의식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attitude toward marriag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birth will (N=150)

Variables	Attitude toward marriag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p)		
Childbirth will	.50**	-.26**	-.09
Attitude toward marriage	1	-.16*	-.10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1	-.3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1

* $p<.05$. ** $p<.01$

3.4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에서 Durbin-Watson 값에서 오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에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지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1=남성, 0=여성), 학년(1=3학년 이상, 0=2학년 이하), 결혼의향(1=있음, 0=없음), 부모의 결혼상태(1=결혼, 0=기타),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1=행복한 편, 0=보통 혹은 행복하지 않은 편)을 가변수 처리하여 결혼관과 양성평등의식을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출산의지 영향요인은 결혼의향($\beta=.44, p<.001$),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beta=.15, p=.031$), 결혼관($\beta=.23, p=.001$)으로 나타났으며($F=18.58, p<.001$),

이들 변수는 48.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hildbirth will of university students (N=150)

Variables	Childbirth will						
	B	SE	β	t	p	T	VIF
Gender	0.13	0.23	.03	0.57	.570	.86	1.16
Grade	-0.18	0.15	-.07	-1.19	.233	.93	1.07
Marriage intention	1.17	0.18	.44	6.42	<.001	.77	1.28
Marital status of parents	-0.04	0.21	-.01	-0.22	.824	.73	1.36
Marital bliss of parents	0.29	0.13	.15	2.18	.031	.73	1.36
Attitude toward marriage	0.09	0.02	.23	3.30	.001	.75	1.32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01	0.00	-.09	-1.46	.145	.82	1.21

$R^2=.693$, Adjusted $R^2=.480$, $F=18.58$, $p<.001$

*Dummy variable: Gender(1=male, 0=female), Grade(1=more than 3 grade, 0=below 2 grade), Marriage intention(1=yes, 0=no), Marital status of parents(1=married, 0=others), Marital bliss of parents(1=happy, 0=moderate or unhappy)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출산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11,14]의 결과와도 같았다. Park[3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녀계획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여학생의 경우 자녀출산을 심신의 스트레스와 자아실현의 방해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OECD 국가의 출산요인 분석에서도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남성육아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5], 출산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출산을 하는 여자의 입장은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14] 출산과 양육 부담, 경력단절 등을 포함하여 성별에 차별화된 대학생 출산준비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출산의지는 5점 만점에 평균 2.98점이었으며, 전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21점[11]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각각 2.60점[14], 3.12점[1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출산의지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출산의지는 경제적, 가족적, 개인적, 정책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대구지역 간호대학생은 4점 만점에 평균 3.02점이었으며, 도구는 달랐으나 인천, 경기지역 대학생의 경우 2.04점[28]으로 나타났다. Han과 Moon[2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관 측정도구는 개인성장, 제도적 필요성, 정서적 안정 등 법률제도, 사회관계, 성취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결혼을 조명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비해 결혼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Kim과 Ko[3]의 연구에서는 학과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직업의식이 높아져 결혼관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53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29] 3.14점, 남녀 대학생 대상 연구[30] 3.42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 검사의 단축 정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8문항, Kim 등[29]의 연구에서는 40문항, Kim[30]의 연구에서는 6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4점 만점에 평균 1.84점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31]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는 1.53점, 모의 심리적 통제는 1.8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선행연구[31]에서는 중학생이 대상이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했다고 느끼는 영향이 더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결혼의향이 있으며,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출산의지가 높아졌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2]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출산은 결혼계획과 결혼과정에서 부부의 관계유지를 위한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11] 결혼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의향과 자녀의 필요성은 비례관계이며,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수록 결혼과 출산의향이 높아지게 된다[4,6].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결혼 연령대인 20대 후반과 30대에 비해 결혼의향이 더 높고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8].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8], 대학 시기 동안 결혼의향을 확고히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향후 국가의 출산율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사회적 홍보와 대학에서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의향이 없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대학생들을 선별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정도는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인식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졌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on 등[1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33]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의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대학생 부모의 부부관계가 안정적일수록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확립되기 때문에[28] 출산의지 또한 높아진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갈등과 권위가 있는 부부관계에서 성장할 경우 결혼관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28]. 대학생 부모에게 가부장적인 가족 분위기를 지양하도록 하며, 화목하고 대등한 부부관계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출산의지는 결혼관에 영향을 받았으며, 결혼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졌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14,15]의 결과와도 같았다. Lee와 Hong[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자녀출산 여부가 결정되며, 결혼의 긍정적 측면이 출산의지를 가지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결혼이 심리적 안정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경우 출산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11]. Kim과 Ko[3]의 연구에서는 자녀관이 결혼관에 가장 영향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출산 의지와 결혼관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안위와 발전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결혼관이 높아지며, 출산의도에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34]. 즉, 전통적 결혼관에 긍정적일수록[6] 출산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특성상 결혼에 따른 출산을 당연시하면서도 사회적 지위나 자기발전, 노후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11]. Lee와 Hong[11]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주의와 자유성이 강조하게 되어 초래된 결과라고 하였다[11].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정신적 의지,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혼의 가치와 이점[36]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반면 양성평등의식은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아니었으나 출산의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녀 성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 자격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의식은 출산을 높이는 개인의 의지에는 영

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역할 분담이 높고 일-가정 갈등이 낮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된다[12]. 즉, 보편적인 출산의지는 육아와 직업 병행 간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의식과 출산의지와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양성평등의식은 본 연구에서 출산의지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이라 여겨지므로[13],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출산의지는 결혼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결혼생활을 통한 결혼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출산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만혼화에 접어든 연령대나 기혼자의 저출산 대책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시점에서 예비부모인 대학생의 출산의지를 확인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출산의지는 결혼의향,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 결혼관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결혼의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출산의지는 육아문제와 직업적 갈등에 초점을 둔 국가의 저출산 정책과 달리 결혼에 대한 내적 이미지 형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시절 동안 결혼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대학 교육과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K 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의지와 관련된 가족적, 개인적, 사회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Progress of

the number and rates of population movements(birth, death, marriage, divorce) [Internet]. KOSIS, [cited 2022 March 17],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vw_cd=MT_ZTITLE&list_id=A2_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accessed June 22, 2022)

-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family database - fertility rates [internet]. OECD, [cited 2022 May],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accessed July 20, 2022)
- [3] N. H. Kim, S. J. Ko, "The effects of stress for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4, pp.178-185,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8.44>
- [4] M. J. Chin, H. E. Chung,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3, No.3, pp.31-51, 2010.
- [5] S. H. Choi, "Successful cases of rebounding total fertility rate an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for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Vol.18, No.2, pp.73-90, 2021.
- [6] B. I. Lim, H. R. Seo,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family values and their intention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1, No.2, pp.123-140, 2021. DOI: <https://doi.org/10.15709/hswr.2021.41.2.123>
- [7] H. Y. Kim, B. Y. Sun, S. D. Kim, A study on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Research repor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p.91, 2010.
- [8] S. L. Lee, "Attitudes toward marriage among the never-married",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268, pp.6-18, 2019.
- [9] N. H. Hwang, G. R. Kim, H. W. Bae, S. H. Lee, A. Mason, Should we be alarmed about low fertility,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ublic of Korea, pp.22, 2016.
-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olicies to Low Fertility [Internet], Korea policy briefings [cited 2020 March 1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1> (accessed July 25, 2022)
- [11] S. Y. Lee, D. A. G. Hong, "The study on the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9, No.2, pp.3-28, 2014.
- [12] Y. M. Song, S. J. Lee, "The effect of couple's role division on the childbirth will in the married female social workers working 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work-family

- conflict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52, pp.401-430, 2016.
DOI: <https://doi.org/10.16975/kifsw.2016..52.013>
- [13] K. S. Kim, H. J. Lee, "The effects of marriage awareness, career awareness, and gender equality to childbirth will amo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1, pp.77-98,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1.77>
- [14] K. H. Shon, N. H. Kim, E. S. Lee,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 pp.719-728, 2019.
- [15] S. H. Park,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of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 pp.103-111,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03>
- [16] E. H. Kang, M. Y. Kim, E. K. Byun,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3, pp.7-17, 2021.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1.7.3.7>
- [17] K. Naila,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 critical analysis of the third millennium development goal 1", *The Journal of Gender & Development*, Vol.13, No.1, pp.13-24, 2005.
DOI: <https://doi.org/10.1080/13552070512331332273>
- [18] J. Y. Seo, H. G. Kim,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childbearing willingness based on number of children-ever-bor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8, No.3, pp.1-24.
- [19] B. O. Kye, Y. M. Kim, Cultural approach to low fertility: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and fertility, Research Report (2016-44-0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ublic of Korea, pp.22-23, 2016.
- [20]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67, No.6, pp.3296-3319, 1996.
- [21] S. D. Lee, N. N. Shi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5, No.2, pp.79-97, 2018.
DOI: <http://dx.doi.org/10.15284/kihd.2018.25.2.79>
- [22] H. K. Kim, S.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 self-direction on their children of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3, pp.1289-1308, 2020.
- [23] J. Y. Cho, K. L. Yu,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cognitive flexibility", *Forum For Youth Culture*, Vol.64, No. 64, pp.199-231, 2020.
DOI: <https://doi.org/10.17854/ffyc.2020.10.64.199>
- [24] E. J. Kim, H. J. Chung, Y. J. Jeong, "Effects of the Value on Children, the Motivation for Marriag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on the Will to Have a Child: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0, No.1, pp.27-39, 2022.
DOI: <https://doi.org/10.7466/jfbl.2022.40.1.27>
- [25] Y. H. Kim, G. A. Jung, "Development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4, No.1, pp.23-44, 2000.
- [26] S. Y. Lee, I. S. Kim, J. H. Go, Development of a Revised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II,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
- [27] S. Y. Jeon,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d self control on children's problems behavior",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25, No.4, pp.169-179, 2007.
- [28] N. R. Han, H. J. Moon,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identity and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on their perceptions of marriag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4, No.2, pp.205-218, 2015.
DOI: <https://doi.org/10.5934/kihe.2015.24.2.205>
- [29] J. H. Kim, G. H. Choi, B. S. Park, S. J. Yoon, H. J. Kim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4, No.3, pp.171-178, 2017.
DOI: <https://doi.org/10.5953/JMJH.2017.24.3.171>
- [30] H. Y. Kim,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482-491,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482>
- [31] H. Y. Lee, J. H. Park,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3, pp.233-258, 2014.
DOI: <https://doi.org/10.14816/sky.2014.25.3.233>
- [32] I. S. Lee,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of childbirth and family strengths on marriage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3, pp.78-86,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3.78>
- [33] J. B. Park,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perceptions of parenthood and procreation consciousness in 2030 generation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1, No.6, pp.2349-2364, 2020.

DOI: <https://doi.org/10.22143/HSS21.11.6.166>

- [34] H. S. Kim,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family values on their marriage valu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8, No.6, pp.217-230, 2017.
DOI: <https://doi.org/10.22143/HSS21.8.6.15>
- [35] J. K. Park, *A study on view on marriage and perception on parenthood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pp.36-38, 2018.
- [36] S. H. Jo,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 rearing Among the Never-Married in South Korea and Jap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267, pp.1-8, 2014.
-

김 세 현(Se-Hyun Kim)

[준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이 은 주(Eun-Joo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주산기우울, 임신부 건강관리,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

홍 수 진(Su-Jin Hong)

[준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